



#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 124위 복자

### 복자 이보현 프란치스코

(1773-1800)



이보현은 1773년 충청도 덕산 황모실의 부유한 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집스러운 성격에 난폭하여 아무도 그를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러다 20세가 조금 넘었을 때, 고향 인근에 살던 황심 토마스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게 되었다. 그리곤 자기 과거를 뉘우치고 새롭게 생활하였다. 1795년에는 주문모 신부를 자기 집에 모셔 성사를 받기도 하였다.

1797년 정사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이보현은 신자들에게 매일 예수님의 수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두려움 없이 신앙을 고백할 것을 권고하였다. 결국 그는 체포되었다. 그리고 배교 강요와 형벌을 당할 땐 “사람들의 기원이 태초에 그들을 창조하신 천주께 있으니, 어찌 그분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마지막 사형 선고문에 기쁜 마음으로 서명한 그는 혹독하게 매를 맞았는데도 죽지 않았다. 끝내 망나니들은 몽둥이로 불두덩을 짓찧어 죽게 하였다. 때는 1800년 1월 9일, 그의 나이 27세였다. 며칠 뒤 교우들이 그의 시신을 거두었는데,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있었으며, 이를 본 여러 명이 입교하였다고 한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 교황 주일

소리 주보 ▶



### 입당송

이 사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웠으며, 주님의 잔을 마시고 하느님의 벗이 되었네.

### 제1독서

사도 12,1-11

### 화답송

시편 34(33),2-3.4-5.6-7.8-9(◎5L 참조)

### ◎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돌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 제2독서

2티모 4,6-8.17-18

### 복음 환호송

마태 16,18 참조

### ◎ 알렐루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 복음

마태 16,13-19

### 영성체송

마태 16,16.18 참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 사도 바오로



카이사리아 유적지

신약성경의 네 복음서가 구약성경의 오경에 견주어진다면, 사도행전은 구약성경의 역사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가 옛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다루었다면, 사도행전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바오로의 선교 활동을 중심으로 초대 교회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전합니다.

사도 21,39에 따르면, 바오로의 출생지는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입니다. 바오로도 여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바깥의 땅에 흩어져 거주하는 유대인들처럼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울이라는 유다식 이름과 바오로라는 그리스-로마식 이름입니다. 그의 유대인 이름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이름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은 벤야민 지파 출신이었는데, 바오로도 벤야민 지파 출신으로 소개됩니다(필리 3,5). 그리고 열성적인 바리사이였던 그가 회심한 뒤 바오로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건 제1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바오로의 제1차 선교 여행은 사도 13,4-14,28에 나오는데요,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로마식 이름이 더 어울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름을 바꿈으로써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강조하는 목적도 있었을 듯합니다(마태 16,18 참조).

사도행전은 총 세 번에 걸친 바오로의 선교 여행을 보고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 곧 로마에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전해줍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고, 예

루살렘에서 활동을 시작한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땅 끝, 다시 말해 세상의 끝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의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오로는 선교 여행 때마다 먼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과 성경에 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방인 선교에 앞서 유대인들을 회심시키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환영받게 되지요. 이로써 바오로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주님의 계획으로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다만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바오로가 유대교 율법과 관습을 무시했다는 오해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카이사리아에서 감옥살이하다 로마로 압송된 뒤, 끝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오로가 로마에서 셋방살이 하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다고만 전하며 끝맺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저자가 자신의 관심사를 애초부터 바오로의 재판이 아닌 로마 선교에 둔 까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오로의 활동이 로마를 마지막으로 끝난 뒤,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느님 나라와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할 책임은 그 뒤를 잇는 모든 선교사, 곧 우리의 몫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 하느님 백성의 특성

### 「교회헌장」 제9항

「교회헌장」 제9항은 세상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종교적, 민족적, 정치적, 문화적 여러 집단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새 계약의 새 백성으로서의 하느님 백성의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느님께서서는 시대와 민족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본래 어느 시대와 어느 민족에도 속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백성은 보편적입니다.

**둘째,**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당신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어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 계약의 준비와 표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이 부른 백성과 당신의 피로 새 계약을 맺으시고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백성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셋째,** 하느님의 백성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 나고(1베드 1,23 참조), 육체적 출생에 의해서가 아닌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남(요한 3,3-5 참조)으로써 그 일원이 됩니다. 곧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됩니다.

**넷째,** 하느님 백성의 머리는 그리스도(기름부음 받은 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의 기름부음인 성령께서 그 머리로부터 몸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하느님 백성 역시 성령의 도유를 받은 메시아 백성입니다.

**다섯째,**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 자녀다운 품위와 자유'의 신분을 지니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머무르십니다.

**여섯째,**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는 사랑의 새 계명을 그 법으로 삼고 있습니다(요한 13,34 참조). 이는 성령의 새 법입니다.

**일곱째,** 하느님의 백성은 세상의 빛이 되고 지상의 소금이 되는 사명을 지닙니다(마태 5,13-16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친교를 이루도록 세우신 이 백성을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기에, 하느님의 백성은 지금은 작은 무리더라도 온 인류를 위한 일치와 희망과 구원의 튼튼한 짝이 됩니다.

**여덟째,** 하느님 백성의 목적은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그 나라는 세상 마지막 날에 당신 친히 완성하실 때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세례로 하느님 백성의 일원이 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지닌다.  
-세례식 중 '촛불 켜 줌' 예식-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교회라고 불린 것처럼, 새 이스라엘인 새 하느님 백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당신 피로 얻으셨고, 당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구원을 이루는 일치의 성사이며, 성령의 힘으로 쇄신하여 마침내 십자가를 통하여 꺼질 줄 모르는 빛에 이를 것입니다. ☉

##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루카 5,4)

뱀물림 사고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입원 치료 중인 50대 남성 환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환자는 낚시를 다녀오던 길에 수풀 속에 있던 뱀에게 물렸다고 한다. 갑자기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내려다보니 작은 뱀 한 마리가 다리에 붙어 있었고, 환자가 너무 놀라서 주저앉으니 뱀은 그새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저도 모르게 다리를 묶고 있더군요. 독사일지 모르는 생각에 마침 가지고 있던 끈으로 무릎 바로 아래를 힘껏 묶었어요. 119 구급차가 도착해서 근처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니까 이미 종아리는 새까맣게 부어 있었어요.” 나는 환자에게 잘 대처하셨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환자는 내게 그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졌어요, 신부님. 누가 봐도 뱀독이 더 올라오지 못하게 끈으로 묶어놓은 건데 그걸 의사라는 인간이 아무 생각 없이 확 풀어버린 거예요. 즉시 저는 머리가 ‘땡’하면서 기절해 버렸고요. 순식간에 온몸에 독이 퍼져서 그 병원에 있는 해독제를 다 갖다 부어서 살렸다고…”

환자가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다가 싶더니 이제는 아예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였다. “그렇게 부주의한 인간이 어떻게 의사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이 발은 잘라야지’ 싶을 정도로 뱀독 때문에 새까맣게 되었는데 그걸 갑자기 풀어버리면 그 독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사람이 의사라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뱀한테 물렸던 건 놀랄 일도 아닌 게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돼요.”

나는 환자의 화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싶어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좋게 보라고 했다. “어쩌면 의사가 일부러 끈을 풀었을지도 몰라요. 독이 몸 전체로 퍼지지 않았다면 다리를 잃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고개를 갸웃하는 환자에게 나는 기어코 한마디를 보냈다. “거꾸로 보면 뱀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하.” 누가 봐도 어색한 웃음, 갑작스레 생긴 침묵을 환자가 먼저 깨트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는 뭐든지 신부님처럼 긍정적으로… 바쁘신데 이제 가 보셔야죠?”

다리 하나를 잃을 생각까지 하면서 죽지 않으려 애썼던 환자였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자기를 죽일 뻔한 의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화를 내던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환자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한 그 의사의 편을 들고 말았다. 사실 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너무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환자를 물었던 뱀까지 걱정하는 바보짓을 하면서 ‘심각함’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거다.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저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던 주님께서는 나도 당신처럼 환자의 깊은 데로 가서 함께 그물을 내리길 바라셨다. 하지만 ‘심각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약함’에 걸렸던 나는 환자가 먼저 깊은 데에 내려놓은 그물마저 서둘러 끌어올리려고 했다. 그래서 나의 주님께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야만 손에 잡히는 환자의 그물을 함께 내려 주시느라, 오늘은 방해만 일삼는 겁쟁이 원목 신부부터 밖으로 내보내셔야 했다. 🌀



**미사 · 피정 ▶▶**

**파티마 평화의 성당 피정**

매달 첫토요일 성모신심 피정 및 미사: 7/5(토)  
매달 13일 피정 및 미사: 7/13(주일)  
매주(목) 피정 (기도 및 강의)  
시간: 10시~14시 미사  
문의: 031-952-6324 파티마 평화의 성당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일시: 8/1(금) 14시 ~ 3(주일) 16시  
대상: 중학생 이상 미혼남녀  
장소: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10만원  
문의: 010-5490-5345

**매일 첫화요 오후 피정 - 토당동 마리아니스트센터**

예수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일시: 7/1(화), 9/2(화) 14시~16:30  
장소: 마리아니스트 센터 (덕양구 호수로 76-13)  
내용: 묵주기도, 성체조배, 영성강의, 미사, 안수  
강사: 장희성 프란치스코 신부 (마리아니스트센터 관장)  
문의: 010-9585-6283 (무료 피정)

**가정선교회 7월 피정**

성가정 영성 피정: 7/2(수) 김경진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7/5(토) 한철호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7/19(토) 김현우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시간: 12:30~16:50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제주성지순례(추차도포함): 9/7(주일)~10(수),  
9/18(목)~21(주일), 10/25(토)~28(화)  
여름피정(우도섬포함): 7/18(금)~20(주일),  
7/22(화)~24(목), 7/26(토)~29(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지혜의 샘 여름특강 캠프**

내용: 성경 본문 속 그리스어 기초문법 (무료 8주 과정)  
강의: 서한석 신부 (가톨릭대 학부대학장)  
일시: 7/7~8/25, 매주(월) 19시~21시 [총 8회]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샘 (중동역 5분)  
문의: 010-3248-9705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7/4(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영적인 치유와 해방의 기도  
강사: 김대영 베드로 신부  
문의: 010-2127-0032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신심 미사**

일시: 7/4(금) 16시 (성시간 15시)  
19:30 (성시간 18:30)  
장소: 고양시 덕양구 삼막2길16 (지축역 10분)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신청 필수)

**교육 · 모집 ▶▶**

**의정부교구 피델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모집: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룻, 트럼펫,  
트럼본, 타악기  
오디션: 7/20(주일) 13시  
장소: 피델리스 연습실 (대화마을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션 곡 악보 (자유곡)  
문의: 010-4856-2596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일시: 7/7부터 (월~토) 10주  
문의: 02-338-3793 아퀴나소르간연구소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들>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 혼성**

CPBC <다함께 성가들> 이호중 교수 지휘  
그레고리오 성가,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 연주  
문의: 010-9842-8818 (남성단원 환영)

**보물관찰청소년 멘토링 봉사자 모집**

내용: 비행 청소년 멘토링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대상: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구리, 남양주, 고양,  
파주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60세 이하 신자  
접수: 6/30(월)까지  
문의: 031-856-0213~5 교정사목위원회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미국·아일랜드 기숙사 학교, 초3~고1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레지오회 해외학교법인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oran

**제22회 가톨릭 대안 좋은학교 연수**

일시: 7/19(토) 09시~17시 / 장소: 양업고등학교  
대상: '좋은 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교사  
접수: 7/8(화) 10시부터 선착순  
회비: 5만원 (식사비 포함)  
문의: 043-260-5076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법원리 성당 반주자 모집**

활동: 매주일 11시 교중미사  
서류: 교적사본, 이력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접수: 이메일 jorina0429@uca.or.kr  
문의: 010-4708-0759

**향심기도 소개 강의**

일시: 7/10부터 매주(목) 14시~15:30 [4주간]  
장소: 영성센터 A313호 (구.계성여고)  
주제: 향심기도 / 내용: 소개강의  
강사: 이승구 신부 (서울대교구)  
대상: 누구나 / 회비: 1만원 (4회)  
문의: 010-4565-8898

**안내 · 기타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수영장 조기개장**

주말개장: 6/6(금)부터 매주(금~주일)  
상시개장: 7/18(금)~8/17(주일)  
개인 및 단체 하루 이용 가능 / 그늘막, 주차 무료  
문의: 031-840-001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2025 살레시오 여름 성소 캠프**

1차: 8/14(목)~15(금)  
고3~35세 이하 건강한 미혼 남성  
2차: 8/16(토)~17(일), 중1~고2 건강한 남학생  
신청: 7/31(목)까지  
장소: 대전 살레시오교육사목센터  
문의: 02-828-3522, 010-6221-3520

**청년과 수도자, 함께 숨을 고르다-오세요**

일시: 9/20(토)~21(주일) / 천안 청소년수련원  
대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신청: instagram.com/com2025oseyo  
문의: 010-6880-9605 축성생활의 해 청년위원회

**성지순례 -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 탐방**

8/15(금)~17(주일): 대구17  
10/18(토)~22(수): 울릉도, 독도~수도원  
출발: 명동 가톨릭회관 후문  
8/28(목)~9/3(수): 백두산, 브뤼기에르주교 죽음의 길  
9/20(토)~23(화): 제주도, 추자도, 차귀도 미사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출발: 9/21(주일), 비용: 599만원 (+2,200유로)  
가톨릭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신부님 동행)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8/9(토) 희년 이탈리아 프랑스 (11일)  
9/17(수)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10/9(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2일)  
10/13(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10/28(화) 산티아고 도보 성지순례 (12일)  
11/10(월) 희년 이탈리아 일주 (11일)  
1/17(토)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문의: 02-319-2533 가톨릭여행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병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이태리 정기희년 성지순례**

9/18(목) 이태리 성체기적성지 (9일, 아시아나)  
지도: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희년특집 해외 성지순례**

9/1(월)~8(월) 멕시코 과달루페 (7일, AM항공)  
9/1(월)~12(금) 벨기에~프랑스~스페인 (OZ항공)  
9/17(수)~27(토) 알프스 지역 수도원 기행 (KE항공)  
9/18(목)~10/1(수) 스페인 산티아고  
200km 도보순례 (KE항공)  
9/20(토)~10/1(수) 동유럽 4개국 성지순례 (KE항공)  
9/24(수)~27일(토) 일본 나가사키 (KE항공)  
문의: 1551-1053, www.cpbctour.co.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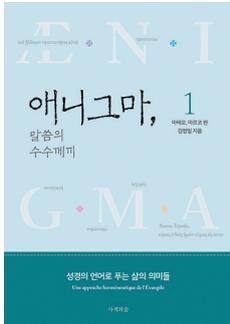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8(월), 9/15(월), 10/17(금) 나가사키 (4일)  
9/8(월), 10/20(월)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12일, 495만원)  
10/14(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399만원)  
10/13(월), 10/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69만원)  
10/22(수) 이탈리아, 메주고리에 (11일, 495만원)  
11/4(화) 이탈리아 (11일, 525만원, 아시아나직항)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8/12(화)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의 숨결을 찾아서  
중국 장춘, 길림, 백두산 연길, 용정, 도문  
(5일, 150만원)  
10/8(수) 추석 특선 - 일본 나가사키 (4일, 160만원)  
10/18(토) 알프스 주변 수도원 순례 및 성모성지  
(12일, 560만)  
11/7(금)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45만원)  
12/4(목)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5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신/간/소/개



김정일 | 344면 | 18,000원  
문의 | 사색의숲 010-3380-3738

**애니그마, 말씀의 수수께끼 1 마태오 마르코 편**

복음서의 언어에 숨겨진 의미를 해석학으로 풀어 읽다

사목 현장에서 화제를 불러 모았던 성경 목상을 바탕으로 복음서에 대한 새로운 사유와 해석을 엮은 책이다.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접하는 모호한 구절을 단서로 하여, 성경 원어에 담긴 뜻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고 본문의 깊고 풍요로운 의미를 밝혀낸다. 저자의 따뜻하고 섬세하며 아름다운 언어는 말씀과 삶이 서로 교차하며 연결되는 은총의 지점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피정**

**한마음 사계 피정 - 8월 (대침묵 피정)**

일시: 8/22(금) 16시 ~ 24(주일) 13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주제: 하느님의 열 가지 말씀들  
지도: 이승엽 미카엘 신부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피정**

**청년센터 프로그램**

**청년 피정 바오로딸 Hope Stay**

고요함 중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일시: 7/11(금) 20시~21:30  
장소: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  
대상: 만 15세~45세 (무료)  
문의: 031-850-1460 청소년사목국

신청 ▶



## 교회의 두 기둥,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오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이 두 사도는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으뜸’로서, 바오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의 두 차원을 대표합니다.

갈릴래아 벳사이다 출신인 베드로는 본래 동생 안드레아와 함께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베드로를 당신 제자들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십니다.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서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마태 16,16)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16,18-19). 또한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돌보아라.”(요한 21,15,16,17) 하시며 그 사명과 지위를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새 사도 선출 모임을 이끌고(사도 1,15-26) 성령 강림 때 사도단을 대표해 설교하였으며(2,14-41)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3,1-10).

바오로는 소아시아 타르수스 출신입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의 속주 킬리키아의 수도로서 그리스 문화가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 독실한 유대교 가정에서 성장한 바오로는 예루살렘으로 가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그의 부모가 유대인이었는데도 로마 시민권을 얻었기에 그가 태생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오로는 초기에 그리스도교를 박해하였는데, 이 일을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그 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생을 바칩니다.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공동체를 돌보았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고발로 붙잡히지만,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미사의 감사송은 이 두 사도의 사명과 역할을 잘 설명해 줍니다.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복된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대축일을 지내며 기뻐하게 하셨으니,  
베드로는 신앙고백의 모범이 되고, 바오로는 신앙의 내용을 밝히 깨우쳐 주었으며,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후손들로 첫 교회를 세우고, 바오로는 이민족들의 스승이 되었나이다.  
두 사도는 이렇듯 서로 다른 방법으로, 모든 민족들을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 모아,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같은 승리의 월계관으로 결합하였나이다.”

베드로와 바오로는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교 박해 시기(64~68년) 중, 로마에서 같은 날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바티칸 인근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바오로는 로마 성 밖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습니다. 훗날 이들 자리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참수된 곳에 세 줄기 샘이 솟아났다는 ‘세 분수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 분수 성당 가까이 바오로의 무덤 위로는 ‘성 밖의 성 바오로 대성당’이 세워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2 style="text-align: center;">행 주 성 당</h2>  <p style="text-align: center;">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9:00 토요일 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본당공지**

■ 손희송 베네딕도 교구장님 행주 본당 사목방문  
일 시: 7월 8일 화요일 오후 6시  
교구에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본당 사목방문을 위하여 교구장님께서 행주 성당을 7월 8일 화요일에 방문하십니다. 방문 시간은 오후 6시이나 본당 신자들의 환영식은 오후 7시 30분에 하오니 시간이 되신는 교우 분들께서는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 7월 봉성체

일 시: 7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남성 레지오 단원 모집

본당 남성 레지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레지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연락처: 이은혁(마태오) 010-2284-6759

**우리들의 정성 (5월 26일 - 6월 01일)**

교 무 금	3건	630,000원
주 일 헌 금		1,103,000원
민족화해 2차 헌금		566,000원

■ 성당 마당 보도블럭 교체 공사에 도움 주신 분

이문섭(베드로), 남영현(모니카) 500,000원  
류일영(요셉) 500,000원, 황홍동(베로니카) 100,000원  
구미경(리베라따) 300,000원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06월 29일	주송자	오정화(아녜스)
	고백주(안토니오), 허경옥(도로테아)	
07월 06일	주송자	신은석(안젤라)
	권우석(라파엘), 정윤정(라파엘라)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29일 바오로: 김윤성, 정순설, 유병우, 신석웅, 이용우  
이광조, 안병용, 한이솔  
베드로: 장영진, 장택수, 박광배, 신삼보  
살로메: 강정자

7월 3일 토마스: 정승운

■ 7월에 기억해야 할 본당 선종 교우

이용택(베드로), 최순례(데레사), 황연희(루시아)  
최정자(마리아), 조용봉(요셉)  
선종한 교우를 위한 미사: 7월2일 수요일 오전 11시

■ 7월 성시간

일 시: 7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

■ 7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7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 교황 주일 2차 헌금

오늘은 교황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행주성당의 성역화를 위하여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